

## 속물의 고고학

—이호철의 『소시민』 연구

김 영 찬\*

### 요약

이호철의 『소시민』은 모든 정신적인 가치가 무너진 자리에서 속물이 대세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기록한다. 이를 통해 『소시민』은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존의 논리가 모든 가치와 염치를 집어삼키던 전시 자본주의의 시대가 어떻게 속물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작가는 그러한 과정이 먹고 사는 것 외에 중요한 가치는 아무 것도 없다는 생존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과정과 동시적인 것이었음을 보고한다. 『소시민』은 먹고 사는 일이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해버렸던 사회변동의 시대가 어떻게 속물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속물성을 합리화하면서 시대의 주류가 되었는가를 냉철하게 포착한다. 그럼으로써 이호철의 『소시민』은 파행적인 근대화가 만들어낸 근대 한국의 독특한 인간형인 속물의 탄생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이자 임상보고서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소시민』의 의의는 단순히 1960년대 소시민의 기원에 대한 보고서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소시민』은 이후 1960년~1970년대를 거쳐 포스트-IMF 시대에 절정에 이르는 '속물의 시대'가 발원하는 원초적 장면을 상연한다. 이것이 속물의 고고학으로서 『소시민』이 갖는 현재적 의의다.

주제어: 소시민, 속물, 고고학, 생존, 근대화, 한국전쟁, 국민, 스티디케이스, 현대성의 경험

\*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부교수

목차

1. 『소시민』의 문제성
2. 제면소라는 임상실험실
3. 몰락과 애도
4. 속물의 정치경제학
5. 결론: 속물의 고고학

## 1. 『소시민』의 문제성

이호철의 『소시민』(1965)은 1951년부터 1952년까지 전시의 피난지 부산을 중심으로 미국 잉여물자의 도입과 분배, 밀수 등을 매개로 급격하게 재편되던 한국자본주의의 소용돌이에 떠밀려가는 인간들의 세태를 관찰하는 소설이다. 이호철은 이 소설에서 전쟁과 천민자본주의가 낳은 새로운 인간형의 형성을 추적한다. 그는 소설의 서두에서 “이 무렵의 부산 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먹던 사람이건 이곳으로 밀려들면 어느새 소시민으로 타락해져 있게 마련”<sup>1)</sup>이라고 말한다. 이 ‘타락한 소시민’이라는 규정은 『소시민』에서 그려지는 피난지 부산의 완월동 제면소 사람들과 그 주변인들의 삶의 형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이호철은 그렇게 전시 자본주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몰락하거나 타락해가는 인간들을 포괄해 ‘소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했다.

이호철에 따르면 소시민이란 전시 자본주의의 소용돌이가 만들어낸 새로운 인간형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간형의 요체는 다름 아닌 ‘타락’이다. 작품의 공간인 완월동은 그런 타락한 소시민들의 삶의 양태가 축약되어 드러나는 곳이다. 소설은 월남한 피난민인 스무 살의 ‘나’가 부산 완월

1) 이호철, 『소시민』, 『소시민/심천도』, 청계, 1991, 397면. 이하 『소시민』의 인용은 이 책의 면수만 부기한다.

동 제면소에 취직하면서 시작되고, 일 년 후 징집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하면서 끝난다. 그곳에서 ‘나’가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일상과 죽음, 몰락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 또 그에 대한 ‘나’의 반응과 감상, 관찰과 개입이 소설을 이끌어간다. 그리고 15년 후 다시 제면소를 찾는 ‘나’의 후일담이 그에 덧붙여진다. 작가는 이를 통해 전시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생존의 논리에 적응해 살아가야 했던 온갖 인간 군상들의 면면을 세세히 그려내면서 그곳에서 개발과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었던 1960년대적 삶의 기원을 포착한다.

이처럼 이호철의 『소시민』이 자본주의적으로 재편되어가던 전시 부산의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던 각계각층의 인간들의 세대를 뛰어넘어 포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편소설로서의 완성도나 예술적 성취에 대해서는 많은 유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소시민』이 “6·25가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적 재편에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예각적으로 포착한 뛰어난 문학적 보고(報告)”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냉소적 체념이 지배하는 “세태소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sup>2)</sup>가 대표적이다. 이 작품이 “정리되지 못한 자료가 무질서하게 산적”되어 있어 “각 부분의 유기적 구성과 입체성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장편소설이라기보다도 차라리 시사단평과 풍속단평의 병렬”에 불과하다는 초기의 비판<sup>3)</sup>도 같은 맥락에 있다. 『소시민』이 근대화의 주체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고 그 때문에 “패배주의적인 허무주의”를 보여준다는 논의<sup>4)</sup>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지적은 물론 상당 부분 타당하며, 장편소설로서 『소시민』의 한계에 대한 이런 인식은 이후의 논자들도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소시민』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그런

2) 최원식, 『1960년대의 세태소설』, 이호철, 『소시민/심천도』 해설, 청계, 1991, 400면.

3) 정명환, 『실향민의 문학 - 이호철의 『소시민』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1967년 여름호, 241면.

4) 구재진, 『이호철의 『소시민』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8호, 1998, 103면.

‘장편소설의 리얼리즘’이라는 특정한 문학적 기준만으로 온전히 측정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소시민』의 의의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는 일차적으로 『소시민』에서 전쟁 특수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전시 부산의 자본주의적 일상이, 급격한 근대화의 물결에 휘말려 들어가던 1960년대의 풍경을 연상시킨다는 바로 그 점과 관련된다.

사실 돌아보면 『소시민』을 세대소설로 비판하는 관점에서도 그 점은 일찍이 지적된 바 있다. 『소시민』이 60년대적 삶의 양식이 이미 전시 부산에서 싹트고 있었으며 그것이 “4·19에 의해 다시 날카롭게 각성된 이상주의가 5·16으로 좌절되면서 우리 사회 속에 자리잡은 소시민적 삶의 양태의 근원으로 된다”<sup>5)</sup> 사실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즉 『소시민』이 자본주의로 재편되던 전시 부산의 일상적 삶을 통해 1960년대의 소시민적 삶의 기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작가 자신도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던 작품의 의도이기도 했다.<sup>6)</sup> 사실 이는 1960년대의 시점에서 전시 부산에서의 삶을 회상하는 소설의 구조에서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기원’이 갖는 의미와 맥락, 역사성이 보다 폭넓게 조명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점은 이후의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호철의 『소시민』을 1960년대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소시민(성)의 기원을 추적하는 작품으로 보는 시각은 이후 논의에서도 지속된다. 『소시민』이 “6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근대화의 열풍 속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된 천민자본주의적 파토스와 소시민의식의 연원을 6·25로 거슬러 올라가 천착하고, 그것을

5) 최원식, 앞의 글, 397면.

6) “(……) 오늘 우리 상황에 너무나도 밀착해 있는 가파르고 답답한 시선을 조금 돌려, 이 상황의 원형으로서의 부산 피난 시절을 들여다봄으로써 30년을 한 줄기로 관통하고 있는 우리 상황의 입체적인 실체를 이 작품을 통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책을 거듭 수정하며 퍼내는 나의 소산이다.” 이호철, 『自序』, 『소시민』, 강미문화사, 1979, 7면.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성격을 문제삼은 작풍이라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이 소설이 “남한사회의 근대화과정 전반에 대한 해석을 함유하고 있는 텍스트”라는 평가<sup>7)</sup>도 그렇고, “전쟁의 유산이 60년대 현실 구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는 소설이라는 지적<sup>8)</sup>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소시민』에서 이호철이 “타락한 소시민”이라고 말하는 인간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적 근대가 생산해낸 독특한 역사적 인간형의 문제와 연동시켜 그 의미를 확장하는 작업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과연 『소시민』의 배경이 된 전시 부산은 자본주의적 관계로 급격하게 재편되어가던 1960년대 한국사회의 축도로 읽힌다. 즉 『소시민』에서 그려진 1950년대의 전시 부산은 틀림없이 급격한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었던 1960년대 한국사회의 거울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이 포착한 상황이 단지 1960년대 근대화의 거울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소시민』에서 이호철은 각기 매우 다른 삶의 감각과 행로를 보여주는 다양한 인물들을 한데 묶어 모두 ‘소시민’이라는 명칭으로 아우른다. 그러나 작가는 다른 한편으로 그런 소시민들 가운데에서 여타 부류들과 특별히 구분되는 특정한 인간형이 부상하는 세태를 부각한다. 그들은 전시 자본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류에 적응해 노골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형이다. 이호철이 『소시민』에서 보여주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들이 시대의 대세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작가는 소설에서 그들을 다른 유형의 인물들과 한데 묶어 ‘소시민’이라는 범주 속에서

7) 강진호, 『이호철의 『소시민』 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민족문화사연구』 11호, 1997, 142면.

8) 임경순, 『폐쇄된 시간과 정신성으로서의 이념』, 겨레어문학회, 『겨레어문학』, 39호, 2007, 310면.

9) 박진영, 『전쟁의 유산: 이념의 해체와 그 애도로서의 소시민화』 이호철의 『소시민』(1964)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57호, 2014, 82면.

다루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범주를 초과하는 새로운 인간형이다. 『소시민』에서 작가가 말하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호철이 소설에서 포착한 그들의 감각과 의식, 행위 등이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끈질기게 기생해왔던 속물성의 근원적 형태라는 점이다. 이는 『소시민』의 시사성과 문화사적 의미가 단순히 1960년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이 글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소설에 대한 세밀한 다시 읽기를 통해 이호철의 『소시민』이 갖는 문학적·문화사적 의미를 재고해볼 것이다.

## 2. 제면소라는 임상실험실

이호철의 『소시민』에서 ‘소시민’은 상황의 논리에 쫓겨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는 비주체적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소설에 따르면 소시민은 무기력하게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이거나 염치없이 시류에 편승하는 낮가죽이 두꺼운 존재다. 소시민은 또한 이해타산에 밝고 되바라지고 부박하며 “왜소하고 치사한”(210면)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연을 가진 존재들인가? 또 그들은 어떻게 그런 소시민이 되었는가? 이호철의 『소시민』은 그 자체가 이 물음에 대한 작가 나름의 답변이다.

소시민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에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기만족적인 속물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sup>10)</sup> 이호철이 사용하는 ‘소시민’이라는 말의 용법은 실은 1960년대에 본격화된 이런 용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즉 1960년대에 쓰이던 소시민이라는 말의 용법을 1951년에서 1952년에 걸친 전시 피난지 부산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쓰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적인 시대착오는

10) 김미란, 『시민-소시민 논쟁의 정치학 - 주체 정립 방식을 중심으로 본 시민-소시민의 함의』,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29호, 2006, 264면 참조.

『소시민』 전체를 일관하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착오는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가? 『소시민』이 시점을 혼동하고 과거와 현재를 원칙 없이 뒤섞고 있다고 한 정명환의 비판을 우회해 보자.

한데 이와 같이 소설을 하나의 실질적 체험의 터전으로 알고 읽어 나가려고 할 때 『소시민』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는 과거를 되산다는 고마운 환상에서 깨어나고 만다.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은 1951년의 것이지만 사실은 1965년의 세상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작가 자신이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작가는 과거의 일을 현재의 일처럼 겪어 보려는 독자를 애써 끌어내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만든다.<sup>11)</sup>

결국 소설이 시점을 무원칙하게 뒤섞어 리얼리티의 환상을 깨트린다는 말이다. 이러한 비판은 리얼리즘 소설의 규범에 따르면 물론 지극히 온당하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정명환의 의도와는 달리) 『소시민』의 진정한 문학적 특징과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징후적으로 암시한다. 즉 『소시민』은 그런 식의 시대착오를 통해 독자에게 과거의 일 그 자체를 체험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과거를 되산다는’ 환상을 깨트리면서 그 과거의 진상과 의미를 오늘의 시점에서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텍스트가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이호철 자신이 전적으로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순 없다. 오히려 이는 단편의 세계에서 리얼리즘 장편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노출된 장편소설 작법의 기술적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효과다. 어찌 됐든 이를 통해 『소시민』은 파행적인 한국적 근대화가 만들어낸 1960년대 소시민의 발생적 기원을 추적하는 임상보고서가 될 수 있었다.

11) 정명환, 앞의 글, 243면.

이때 전시 부산의 완월동 제면소라는 제한된 공간은 소설에서 관찰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실험실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작가는 전시 부산에서 뿌리를 잃고 부유하는 갖가지 사연의 인간들을 “타락한 소시민”이라는 범주 속에 뭉뚱그려 완월동 제면소라는 한 공간에 몰아넣는다. 그리고 작가는 초점화자인 스무 살의 실험민 ‘나’에게 이 인물들의 행태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부여한다.<sup>12)</sup> 스무 살의 ‘나’(박씨)는 인물들과 함께 엮히고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지만 시종 인물들을 관찰하고 비평하는 관찰자의 역할에 충실하다. 문제는 ‘나의 내면이 스무 살’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성숙하고 지적이라는 점인데, 이는 1965년의 시점에서 비평가로서의 작가의 내면이 그 위에 겹쳐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시점의 혼동<sup>13)</sup>은 분명 문제적인 것이지만, 오히려 거꾸로 두 개의 다른 시간대의 시점이 겹쳐 있는 그런 이중의 내면이 결과적으로는 비평적 관찰자로서 ‘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하지만 스무 살의 ‘나는 분명 사태를 관찰하고 비평하는 분석가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거나 충동적인 정사에 휘말리기도 하고, 인물들에 대한 연민과 경멸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비애와 자기 설움을 못 이기는, 그러면서 (정신분석가의 비유로 말하자면) 전이와 역전을 무원칙하게 반복하는 서툰 분석가다. 소설에서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그 위에 얹히는 또 하나의 객관적 관찰과 비평의 시점이다. 그것은 바로 15년 후의 (작가 자신을 연상시키는) ‘나의 주석적 논평’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시점의 겹침과 다층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 소설이 제면소를 둘러싼 소시민적 삶의 여러 양태들에 대한 일종의 스테

12) 이 점은 소설에서도 분명히 제시된다. “과연 이 지점에서 각자는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나 나나의 감수성과 비평안으로 이 완월동 제면소를 둘러싼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지 않은 호기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38면)

13) 정명환, 앞의 글, 243-244면 참조.



디케이스(study-case)로 기능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스무 살의 초점화자인 ‘나(박씨)가 이들을 곁에서 함께 겪고 지켜보고 비평하는 역할을 한다면, 주석적 논평의 주체인 15년 후의 화자는 그 모든 것을 메타적 위치에서 조망하고 평가하며 그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을 의미화하는 역할을 한다. 『소시민』의 이야기가 소시민이라는 인간형의 형성에 대한 스터디케이스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장치들의 효과다.

그렇다면 작가는 소시민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소설에서 그것은 대부분 메타적 위치에서 주석적 논평의 형태로 설명된다. 예컨대 다음 구절은 소시민이라는 인간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논평적 서술이다.

어차피 사회 전체의 격동 속에서는 종래의 형태로 있던 사회 각 계층의 단위는 그 단위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한수렁 속에 잠겨서 격한 소용돌이 속에 휘어들어 타류를 이루게 마련이었다. 미국의 잉여물자는 한국의 전쟁판에 그대로 쏟아 부어지고 그런 속에서 미국의 실업계는 새로운 숨을 쉬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하여 전란은 한국의 강토를 피폐시키고는 있었지만 어느 모르는 전란에 매달려 나머지 한국인은 그날그날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무렵 미국의 숨통을 잇는 파이프는 두 가닥으로 부산과 일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두 곳이 다 상반되는 소모 속에 열을 뿜고 있었다.

미국 물자는 부산 바닥에도 고르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논리를 좇아 지그재그를 이루고 있었다. 그 물자를 둘러싸고 새로운 피나는 경쟁이 벌어지고, 새로운 뜨내기 부유층이 형성되어갔다. 결국 부산은 일선과는 다른 양상으로 밤마다 타오르고, 여기서부터 한국사회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고 있었다. 살아갈 기력이 없는 퇴물들은 쓸려가고 기력이 있는 자만 살아남게 마련이었다.(『소시민』, 37-38면)

부산 자유시장의 폭발적인 비대는 곧 우리 구조의 폭발적인 해체와 양

면을 이루는 일면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완만한 해체과정을 겪고 있던 이 땅의 전 구조는 그 침예한 부분에서부터 자유시장의 소용돌이에 휘어 감기고 말았다. (……) 사회적 무정부상태는 사회 내의 도처에 큰 아가리를 뚫어놓았고 이러한 공동(空洞)은 금시 탁류에 찬 잡것으로 들이차고 있었다.(『소시민』, 142면)

전시 자본주의의 폭발적인 비대화와 그로 인한 시장의 소용돌이가 사회의 해체와 재편성을 가속화하고 인격의 해체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다. 『소시민』의 서술에 따르면, 전시 한국의 자본주의는 미국 실업계의 숨통을 튜어주기 위해 투입된 물자들의 유통과 소모를 통해 기이한 활력을 공급받았다. 그 결과 비대화된 자유시장의 소용돌이는 모든 것을 해체하고 인간들을 변모시켰다. 이것이 작가가 생각하는 소시민의 발생적 근원이다. 작가는 이처럼 전쟁 특수에 힘입은 시장 자본주의로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단단한’ 한 시대의 몰락이 소시민 형성의 사회경제적 배경임을 적시한다. 여기서 작가가 묘사하는 장면은 마치 끝없이 계속되는 해체와 갱신, 투쟁과 모순, 모호성과 극심한 고통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단단한 모든 것이 대기 속에 녹아 사라지는’(마르크스) 현대성의 경험<sup>14)</sup>의 한국적 양상이라 할 만한 것이다. 이호철은 그렇게 무정부상태의 소용돌이와 탁류 속에서 해체되고 무너지는 삶의 토대에 대한 서술을 곳곳에서 반복한다. 이러한 서술은 파행적 자본주의의 급속한 팽창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일상과 행로를 결정하는 최종심급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인들이 어느 모로는 “전란에 매달려” “그날그날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서술이다. 이처럼 모든 삶의 근거를 파괴하는 전쟁이 역설적이게도 삶을 이어가게 하는 생존의 기반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소시민의 일상적 삶이 어떻게 전쟁에 의존하고 있었는가를 암시한

14) 마살 버먼, 윤호병·이만식 옮김,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1994, 12면.

다. 그런 측면에서 『소시민』의 작중상황을 배후에서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전쟁이다.<sup>15)</sup> 물론 작중화자인 스무살의 ‘나’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자의식을 보여주진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이렇게 사람들을 몽청몽청 잡아가는 이런 험한 전쟁판에 텅 텅 부어오른 괴어 있는 일상 속에 잠겨 이렇게 전혀 쓸모없는 일이나 벌이고 있는 이 완월동 제면소라는 곳이 어이가 없었다. 싸움은 일선에서 하고, 이따금 사망통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후방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지고, 그리고는 다시 일상의 물길에 휘어감긴다. 심지어는 일선과 후방 사이의 어느 근처쯤에 완강한 장막 하나가 가려 있는 듯이도 여겨졌다. (『소시민』, 184면)

그럼에도 작가는 소설의 곳곳에서 피난지 부산이라는 공간 자체가 전쟁 때문에 새롭게 재편된 공간이었고,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징집에 대한 불안이 지배하는 곳이었음을 환기한다. 실제로 『소시민』에서 부산은 일상적인 삶의 질서와 기이한 활기가 지배하는 생활의 공간으로 그려지지만, 전쟁은 그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그렇게 전시 부산의 일상의 활력을 지탱해주는 뒤편에서 징집영장과 전사(戰死) 소식 등을 매개로 수시로 일상의 질서를 균열시키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즉 전쟁은 전시 부산의 일상과 상징 질서,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과 정신 구조를 근원에서 구조화하는 실재(the Real)와 같은 것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소시민』에서 전쟁은 그렇게 서사의 표면에 부각되지 않고 소문으로만

15) 『소시민』에서 전쟁은 사망통지서나 징집영장 또는 소문의 형식으로만 전해질 뿐이지만 사회 변동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로 암시된다. 김한식, 『전쟁과 유민, 도시에서 살아남기 - 이호철의 『소시민』 연구』,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34호, 2009, 136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소설은 오히려 바로 그 때문에 의도치 않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즉 이 소설은 그럼으로써 휴전이 된 후에도 분단체제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의 일상적 의식을 보지 않게 지배해왔던 생존의 공포와 그것이 만들어낸 생존 논리의 발생적 근원을 예시하는 소설이 될 수 있었다.

### 3. 몰락과 애도

『소시민』에 따르면 전시 한국의 팽창하는 자본주의는 단단한 구조의 해체를 이끌었고 그 구조의 해체는 다시 인간의 해체를 불러왔다. 『소시민』에서 그러한 변화의 요체는 다름 아닌 한 시대의 몰락 혹은 무너짐으로 요약된다. 이호철은 이를 소설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환기한다. 예컨대 한때 땅마지기나 있는 집안의 태생이었으나 지금은 식모로 전락한 천안색시를 보며 ‘나는 “한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36면)을 본다. 그렇게 “모두가 한 색깔로 떨어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정씨-인용자)가 아직 지키고 있는 그 규범과는 거꾸로 소리를 지르며 급강하를 이루어 부서져가고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보았다.”(84면)

무너지는 것은 세상만이 아니다. 한 시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인간을 떠받치고 있던 토대 혹은 발판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한 시대가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인간도 무너진다. 한때 조직운동가였다가 지금은 약삭빠른 생활인으로 변신한 김씨를 보며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도 지난날 그를 떠받들어주고 있던 모든 발판이 와해된 속에서 이렇게 일개 소시민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34면) 같은 조직운동가였던 정씨는 그의 수하에 있었던 김씨의 변화를 이렇게 예의 ‘무너짐’으로 요약한다. “난 김씨에게서 김씨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보지만,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봐요.”(46면) 이처럼 ‘나’가 회고하는 전시 부산의 한때는 “모든 사람이 미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마당”(48면)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한 세월의 완연한 끝맺음이 벌어지는 자리”(57면)다.

그런데 무엇이 무너진다는 것인가? 이호철은 『소시민』에서 그 ‘무너짐’의 실체를 ‘정신적인 것’의 몰락으로 요약한다. 그 정신적인 것의 몰락을 대표하는 것은 한때 “왕년의 남로당과 약간은 연줄이 닿아 있었던”(13면) 것으로 짐작되는 정씨의 몰락이다. 부서지고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정씨는 한때 강건한 이념의 소유자였으며 조직운동가였다. 그러나 지금은 일개 제면소의 직원으로 겨우 밥을 벌어들여먹는 처지로 전락했다. ‘나’가 제면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정씨는 일꾼들과의 술자리에서 노예근성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주인과 싸우면서 대거리를 할 정도로 결기와 강기를 지닌 인물이었다. ‘나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정신”(131면)의 소유자였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어느 모서리 아직 냉엄하고 건실한 것을 견지”(48면)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정씨의 누이 정옥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이상주의”(134면)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생활의 압력에 떠밀려 결기를 잃고 속절없이 무너져내리고, 의지했던 누이마저 죽어버리자 점점 치명적인 좌절과 무기력에 잠겨 들어간다. 특히 지고한 정신성의 소유자로 묘사되는 정씨의 누이 정옥의 죽음은 그러한 정신적인 것의 몰락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다.

그런데 『소시민』에서 그 ‘정신적인 것’이란 단지 이념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다. 작가는 스러져가는 지난 시대의 습속이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들에서도 몰락해가는 정신적인 것의 흔적을 발견한다. 그것은 예컨대 ‘주인마누라를 중심으로 조성된 예의 없고 천박한 완월동 제면소의 풍습과는 정반대의 자리에 놓인 것들이다. 정씨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해 정옥을 만나는 ‘나’는 그곳에서 “조출하고 가라앉은 조선사람 분위기”(85면)를 느끼는데, 이는 눈이 하나밖에 없지만 신비스런 정결함을 간

직한 정옥의 이미지와 결합해 지금은 스러져가는 어떤 전통적인 정신성의 흔적으로 비쳐진다. 그것은 정옥(貞玉)이라는 이름이 표상하는 것처럼 어떤 정결함과 지조의 세계에 가까운 것이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나’가 징집영장이 나온 뒤에 방문한 주인 형 집에서 “수줍은 듯한 느낌과 짙은 향수 같은 것”(228면)을 느끼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나’는 무언가 서글픈 듯한, 육중한 안정감이 감도는 그 세계에 편안함을 느낀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은 가지 못하는 고향이나 스러져가는 전통의 가치에 대한 향수가 어느 정도 착종되어 있는데, 작가는 그러한 가치들을 ‘무너짐’이라는 측면에서 정신적인 것과 같은 자리에 놓고 있는 셈이다.

그 점은 『소시민』에서 작가가 ‘위엄’이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징후적으로 드러난다. 작가는 정씨를 포함해서 특히 급변하는 자본주의적 세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거나 무기력하게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위엄’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다. 동경 일교(一橋)대학 출신의 좌익운동가였으나 ‘보련’(보도연맹) 가입 후 망가져 지금은 부인에게 버림받고 제면소에 기식해 연명하는 강씨, 좋은 집안 태생이었으나 식모로 전락했고 남편이 전사한 뒤엔 김씨와 살림을 차리는 천안색시, 성공한 제면소 주인인 동생과 달리 날뎠팔이 지게꾼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인의 형 등이 바로 그들이다. ‘나’는 정씨에게서 “고독해 보이는 사람의 그 위엄”(20면)을 보고, 한밤중에 술에 취해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는 강 영감에게서 “어느 때 느낄 수 없는 위엄”(10면)을 발견한다. 또 어느 날 일선에서 찾아온 남편을 소개시키는 천안색시에게서 “나는 ‘큰 집안의 아내 풍의 위엄’(54면)이 발산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주인의 형에게서 ‘나가 발견하는 것은 “은근땀땀한 위엄”(22면)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위엄이라는 표현을 이처럼 빈번하게 즐겨 쓰는데, 심지어 정옥을 만나고 돌아온 날에 ‘나’에게서도 “신비스러운 위엄”(111면)이 발산된다고 할 정도다. 이때 위엄이라는 표현은 그 인물들이 처한 지금의 궁색한 처지와 아이러니한 대비를 이룬

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 풍모라는 위엄의 원래 함의가 상대화되면서 쓸쓸함의 정조가 유발된다. ‘나’가 여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실감하는 지나가고 무너진 세월의 여운이, 어떤 정신적 가치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는 이 소설의 주제선과 맥이 닿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이제 옛것이 돼버린 정신적인 가치의 무너짐을 목도하는 ‘나’의 반응은 대체로 서글픔에 젖어들거나 설움에 복받치는 것이다. 예컨대 징집영장을 받고 방문한 주인의 형 집에서 짙은 향수를 느끼는 ‘나’는 “웬일인지 가슴 한모서리가 우지끈우지끈 아파왔다.”(228면)고 하는가 하면, 강영감이 죽은 뒤에는 울음에 잠겨 “스스로 생각해도 왜 이렇게 설움이 복받치는지 알 수가 없었다.”(42면)고 말한다. 이것은 그 세계의 무너짐은 불가피한 것임을,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는 자의 반응이다.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는 설움이나 서글픔 같은 ‘나’의 감상적인 반응은 어느 면에선 지나친 감상주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달리 보면 그렇게 불가피하게 스러져가는 모든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애도의 표현이기도 하다.

『소시민』의 중심에는 이처럼 무너지고 스러져가는 모든 정신적인 것에 대한 애도가 자리잡고 있다.<sup>16)</sup> 애도란 잃어버린 가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제 그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소시민』은 무너지는 것들을 떠나보내고 애도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비애로 가득한 작품이다. 소설에서 그려지는 많은 죽음들, 즉 강영감, 천안택의 남편, 정씨, 정옥의 죽음은 이를 극적으로 상징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한 시대는 어차피 종말

16) 『소시민』이 이념(성)의 해체에 대한 애도를 보여준다는 지적(박진영, 앞의 글)은 적절하다. 그러나 『소시민』에서 애도의 대상은 단지 이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간직했다고 여겨지는 사라져가는 옛것이라고 보는 것이 작품의 실상에 좀 더 부합한다.

을 고했고, 이제 시대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이호철은 이를 ‘상황의 메카니즘’이라는 말로 정리한다.

모든 상황은 그 상황 자체의 논리를 좇아 뻗어가는 것이고, 일단 그 상황 속에 잠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의 논리에 휘어들게 마련일 것이다. 이른바 상황의 메카니즘이라는 것이다. 그 상황의 메카니즘이 급한 소용돌이를 이루면 이룰수록 그 속에서의 사람들의 변모해가는 과정도 속도를 지니게 된다.(『소시민』, 141면)

모든 것이 상황 자체의 논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러한 흐름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 잠긴 사람들이 상황의 논리에 휘말리는 것도 불가피하다. 『소시민』에서 ‘나’가 생활력의 화신이 되어가는 김씨에 대해 보여주는 감정이나 태도도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나’는 김씨를 한편으론 거리를 두고 못마땅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어쩔 수 없이 이해하고 인정한다.

며칠 전만 해도 무너져가는 이 거리의 어느 외곽에서 정씨 혼자 완강히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내 생각은 정반대였다. 결국 정씨도 별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 사그리 무너져가고 있는 이 바닥 한가운데서 육중하게 버티고 걸어가는 것은 차라리 이 김씨라는 생각이었다. 전차에 올라탄 김씨는 그렇게 당당하고 번들번들한 모습이었다.(103면)

무너지고 지나간 것에 대한 애도는 현실의 논리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와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나’가 과거를 지우고 상황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용하는 김씨를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어떨 땐 심지어 감탄까지 하게 되는 것은 그런 맥락이다. 예컨대



“니 내가 좋나?” 하는 김씨의 물음에 ‘나’가 “야, 마주 있으면 좋은데, 나 혼자가 되면 다시 싫어져요.”(106면)라고 답하는 장면은 김씨에 대한 ‘나’의 양가감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나의 이런 양가감정은 1965년 현재의 작가 자신의 그것이기도 하다. 즉 작가는 상황의 메카니즘 혹은 시류에 편승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삶의 논리였음을 승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작품의 주제를 단순히 소시민에 대한 비판이라고 단선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보수주의라고 단정해버리는 것도 일면적인 파악이다. 오히려 여기에는 어떤 이념이나 관념으로 쉽게 재단할 수 없는 삶의 복잡성에 대한 이호철의 인식이 가로놓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4. 속물의 정치경제학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소시민』은 한국적 근대가 만들어낸 독특한 근대적 인간형의 발생적 기원에 대한 임상보고서다. 작중화자이자 관찰자/보고자인 스무 살의 ‘나’는 때로 자기 설움과 지나친 감상에 젖어들긴 하지만, 대체로 이 관찰과 보고의 역할에 충실하다. 그리고 메타적 위치에서 작중 상황을 조망하는 논평자로서 기능하는 또 다른 시점은 스무 살의 ‘나’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상황들의 의미를 보다 넓은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 위치짓는다. 『소시민』이 무너지고 스러져가는 사람들이나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들(특히 김씨)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 편도 들지 않는 것은 이 소설의 구도 자체가 그런 관찰과 보고에 더 큰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근원에는 삶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느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지 않는 이호철의 창작 태도가 있다. 『소시민』이 기원을 되돌아보는 치밀한 고고학적 탐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힘입은 것이다.

이호철이 『소시민』에서 그리고 있는 이른바 ‘소시민’은 사실 한국문학사에 전례가 없던 새로운 인간형<sup>17)</sup>이다. 그들은 한 마디로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는 인간들이다. 그들에게는 한국적 근대에 대한 동의와 편승, 타협과 적응, 체념과 무반성 등의 태도가 복잡하게 뒤얽혀 있으며, 그런 만큼 그들은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편으론 무기력하거나 순종적인 기생적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욕망을 따라 앞으로 달려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또 그들은 말 그대로 천박하기도 하지만 가련하기도 하고, 연민을 자아내지만 경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한편으론 수치를 모르고 당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과 염세에 젖어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우스꽝스럽지만 뒤편에선 모종의 비애를 머금고 있기도 하다.

『소시민』에 등장하는 인물들 자체가 그렇게 쉽게 도식화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어느 하나로 규정하거나 재단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이호철은 그들의 양면성과 모순성을 어느 한 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그려 놓는다. ‘나의 태도도 그에 따라 한편으론 그들을 연민하면서도 경멸하고, 한편으론 못마땅해 하면서도 감탄하는 등의 이중적 태도를 유지한다. 이는 이호철이 단지 중간자적 혹은 중립적 시각을 내세우기 때문이 아니다.<sup>18)</sup> 오히려 사실은 거꾸로다. 즉 일차적으로는 그들 자체가 이미 양면성과 모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어느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추적하고 관찰하는 태도가 결과적으로 중간자적 혹은 중립적 입장으로 비치는 것일 뿐이다. 그 점에서 이호철은 소시민의 발생에 대한 임상보고 혹은 고고학적 탐구라는 의도를 충실히 관철하고

17) 심진경, 『소시민, 천박하거나 가련한』, 『국민일보』, 2017년 6월 2일.

18) 이호철의 『소시민』이 중립적 시각 또는 중간자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보는 대표적인 논의로는 박진영, 앞의 글과 정원채, 『이호철의 『소시민』에 나타난 인식적 특성과 소설미학적 특성』,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159호, 2011.)이 있다.

있는 셈이다.

이호철은 『소시민』에서 등장인물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별하는데, 하나는 상황의 논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인물들과 다른 하나는 시류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왕성한 생활력으로 자기 이익을 쫓는 인물들이다.<sup>19)</sup> 『소시민』에서 작가는 상황에 휩쓸리는 그 모든 등장인물을 ‘소시민’이라는 범주 속에 몽땅그린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에서 작가가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소시민’이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보면 그리 적절치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갖는 인물들의 차이를 무화하고 단일화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시민』의 진정한 득의는 그런 한계 속에서도 그 몽땅그려진 소시민들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초과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분화되어나가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새로운 정체성의 다른 이름은 바로 ‘속물’이다.

속물은 유례없이 성공적으로 형성된 한국의 근대성이 체계적으로 주조해낸, 특별한 종류의 근대적 인간형이다.<sup>20)</sup> 소시민과 속물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속물에게는 최소한의 수치와 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호철은 소설에서 ‘속물’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는다. 대신 그가 보여주는 것은 정신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스러진 자리에서 무치(無恥)와 몰염치가 대세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소시민』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존의 논리가 모든 가치와 염치를 집어삼키던 전시 자본주의의 시대가 어떻게 속물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 동시에 작가는 어떻게 속물들이 스스로의 속물성을 합리화하는가를 예리하게 포착한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김씨다. 그는 과거의 이념이나 신념에 매달리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편승해 돈을 버는 길

19) 정호웅은 이를 전락하는 인물과 상승하는 인물로 분류한다. 정호웅, 『탈향, 그 출발의 소설 사적 의미 - 이호철의 『소시민』론』, 문학사와비평연구회, 『1960년대 문학연구』, 1993, 85-92면 참조.

20) 장은주, 『인권의 철학』, 새물결, 2010, 416면.

을 충실히 따라가는 인물이다. 김씨는 돈 되는 일이라면 염치 안 가리고 무슨 일이든 하는 “생활 그 자체의 화신”(99면)이다. 그는 말한다.

쌍놈이 안 되면 대관절 어짜깁다는 거고? 어짜기여? 내 윈 참, 대관절 어찌 됐다는 거고? 별의 별 쌍놈의 짓 다 해서라도 돈만 벌면, 그날부터 양반도 될 수 있는기여. 그래서, 그래서 그게 어찌 됐다는 거고?(『소시민』 105면)

김씨는 스스로를 ‘쌍놈’이라 자처하며 돈만 벌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에겐 수치도 없고 염치도 거추장스럽다. 속물의 특징은 치부와 성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피상성과 천박성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드러내는, 신념에 충만한 당당함과 과시적인 파렴치<sup>21)</sup>에 있다. 김씨의 위의 진술은 속물의 그런 특징을 정확하게 예시한다. 김씨가 돈에 대한 욕망과 신분상승에 대한 노골적인 욕망을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공공연히 과시하는 이 진술은,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속물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22)</sup>

그리고 광석이 아저씨가 있다. 그는 ‘나’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농사를 짓다가 전쟁통에 피난지 부산으로 떠밀려와 부두노동자에서 시작해 풀빵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소심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는 부두에서 불법으로 유출되는 물건을 팔아 돈을 모으더니 자유시장에 어엿한 점포까지 내고 성공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속물로 변신한다. 김씨가 돈을 벌기 위해 이승만정권의 앞잡이가 되었듯이, 그 또한 이승만의 관제

21) 김홍중은 이를 속물의 특징으로 설명한다.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66면.

22) 김씨의 다음 진술은 속물들이 자신의 그런 노골적인 욕망을 어떻게 상황의 논리로 합리화하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전에는 저자(정씨-인용자)와 나를 묶고 있던 것이 공동의 이념이라는 알량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 생활력으로 둔갑을 했능기라 돈 많은 놈이 우위에 서게 되능기라. 내가 아무리 그리 안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현 실상은 그렇지라 못 하지러. 안 그렇교?”(『소시민』, 102면)

데모에 가담한다. ‘나는 광석이 아저씨의 변화를 이렇게 보고한다.

사실 광석이 아저씨는 그 뒤 급속도로 달라져갔다

두 달 뒤에는 자유시장 안에 제대로 점포를 하나 잡아, 제법 구색 맞춘 잡화상을 차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는 날로 대한민국의 충성스런 국민의 한 사람이 되어갔다. 이승만 씨에 대한 평가도 확고부동이었다. 이북 농촌 구석의 한 사람이었던 자기에게 별안간 이런 길을 열어준 것이 이승만 씨의 그 민주주의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란 그의 경우 이 점에서 가장 좋은 체제인 것이다. 광석이 아저씨는 모든 인습적인 것, 농촌적인 것을 타기하려 들고 제 나름으로 가장 진취적인 사람으로 자처해나갔다.(171면)

『소시민』은 광석이 아저씨의 사례를 통해 경제적 인간인 속물이 어떻게 지배체제와 결탁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면서 억압적 국가체제의 일원으로 자발적으로 통합되어갔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전쟁은 ‘국민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간이었다.<sup>23)</sup> 『소시민』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한국전쟁은 또한 ‘속물을 창출하는’ 역사적 기간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이호철에 따르면, 속물과 국민은 하나다. “이렇게 되면서 그는 날로 대한민국의 충성스런 국민이 되어갔다”는 진술은 속물들의 욕망의 경제가 어떻게 억압적 국가체제와 공모하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포착한다. 그리고 이는 먹고 사는 일 이외의 가치는 돌아보지 않는 ‘경제적 인간’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개발의 주체로서 호명하고 동원했던 1960~70년대 박정희체제에서 벌어졌던 일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소시민』은 단순히 1960년대 소시민의 기원을 탐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소시민』이 하고 있는 일은 거기서 더 나아가 한국의 파행적·

23)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윤해동 외 엮음,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2006, 355면.

압축적 근대화가 낳은 독특한 한국적 인간형으로서 속물의 탄생과 그 속물의 정치경제학이 작동하는 원초적 장면을 그려 보여주는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에 ‘나는 군대에 가기 전에 자유시장 점포에서 열린 광석이 아저씨의 결혼식에 들른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식을 보러 온 김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한다.

도대체 이런 김씨와 오늘의 결혼식 장본인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그들은 제각기 조건에서의 제각기의 과정을 거친 끝에 이제 같은 줄기에서 합쳐지고 있는 셈이었다. (……) 세상은 바야흐로 이들이 주름잡는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 음산한 정열과 매사에 성실성을 버리고, 상투적으로 곁껍데기로만 살기로 걱정하고 있는 듯하였다. 그렇게 누구나가 어떤 수단으로건 돈을 벌어야 할 것이었다. (……) 시골놈이 부산 내려와서 벼락출세를 한 셈이다. 카메라는 신랑이 김씨와 악수를 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그 광경은 역시 나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새삼 생각하게 하였다.(『소시민』, 234-235면)

서로 완전히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진 자들이 변모와 타락을 거듭한 끝에 이제는 같은 속물이 되어 하나로 합류한다. 김씨와 광석이 아저씨는 물질적 부를 과시하는 자리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나는 “세상은 바야흐로 이들이 주름잡는 세상으로 접어들게 될 것임을 직감한다. 이 장면은 이제 한국사회가 속물들의 연대에 의해 지배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그들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어가는 경제개발의 주체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속물은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인간형이 될 것이다. 이호철이 『소시민』에서 포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1960~70년대뿐만 아니라 이후 포스트-IMF 시대에서도 다른 형태로 반복되는 속물의 시대가 탄

생하는 원초적 장면인 셈이다. 이 장면에 이르러 『소시민』은 1960년대 소시민의 기원을 탐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간다. 즉 『소시민』은 2000년대 포스트-IMF 시대에 극적으로 극대화된 속물적 망탈리테(mentalité)의 발생학적 기원을 보여주면서도, 이후 그 몰가치적인 '경제적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억압적 국가체제와 공모하면서 한국적 근대화 과정의 지배적인 대세가 되어갔는지를 앞질러 예시하는 소설이다.

## 5. 결론: 속물의 고고학

이호철은 『소시민』에서 “구조의 폭발적인 해체”를 불러온 “자유시장의 소용돌이”로 인해 모든 단단한 것이 해체되고 무너지는 과정을 상세히 보고한다. 그 보고는 마치 현대화(modernization)에 대한 버먼의 묘사를 연상시킨다. 버먼은 현대성의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지금 우리의 모든 모습을 파괴하도록 위협하는 환경 속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sup>24)</sup>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런데 버먼에 따르면, 현대화는 인간이 단순한 객체로 휘말려 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세계에 주체적으로 개입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비전과 이념을 배양하는 계기이기도 하다.<sup>25)</sup> 그러나 이호철의 『소시민』에서 그려지는 인간들의 행로는 그런 비전이나 이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몰가치와 몰염치가 비전과 이념을 대체한다. 『소시민』의 등장인물들은 모든 것을 해체하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몰락하거나 아니면 시류에 편승해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데 몰두한다. 이호철에 따르면 전시 한국사회에서의 현대성의 경험은 그렇게 ‘삶의 가능성과 모

24) 마셜 버먼, 앞의 책, 12면.(번역은 수정)

25) 위의 책, 13-14면 참조.(번역은 수정)

험의 경험'(버먼) 대신 거꾸로 삶의 근본을 지탱해주는 '정신적인 것'의 해체와 이익을 좇아 주어진 현실에 영합하는 속물근성을 낳았다. 『소시민』이 포착하고 있는 것은 전쟁에서 비롯된 파괴적인 근대 경험이 야기한 바로 이런 시민적 주체 형성의 굴절과 왜곡이었다.

이호철의 『소시민』은 모든 정신적인 가치가 무너진 자리에서 속물이 대세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기록한다. 그러면서 작가는 그러한 과정이 먹고 사는 것 외에 중요한 가치는 아무 것도 없다는 생존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과정과 동시적인 것이었음을 보고한다. 이때 작가는 이들 속물을 소시민이라는 포괄적인 범주 속에 묶어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아직 작가가 이들을 다른 소시민들과 구별할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호철은 먹고 사는 일이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해버렸던 사회변동의 시대가 어떻게 속물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속물성을 합리화하면서 시대의 주류가 되었는가를 냉철하게 포착한다. 그럼으로써 이호철의 『소시민』은 파행적인 근대화가 만들어낸 근대 한국의 독특한 인간형인 속물의 탄생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이자 임상 보고서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소시민』의 의의는 단순히 1960년대 소시민의 기원에 대한 보고서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소시민』은 이후 1960년~1970년대를 거쳐 포스트-IMF 시대에 절정에 이르는 '속물의 시대'가 발원하는 원초적 장면을 상연한다. 이것이 속물의 고고학으로서 『소시민』이 갖는 현재적 의의다.



## | 참고문헌 |

## 1. 논문

-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윤해동 外 엮음,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2006, 355면.
- 강진호, 『이호철의 『소시민』 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민족문화사연구』 11호, 1997, 142면.
- 구재진, 『이호철의 『소시민』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8호, 1998, 103면.
- 김미란, 『시민-소시민 논쟁의 정치학 - 주체 정립 방식을 중심으로 본 시민-소시민의 함의』,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29호, 2006, 264면.
- 김한식, 『전쟁과 유민, 도시에서 살아남기 - 이호철의 『소시민』 연구』,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34호, 2009, 136면.
- 박진영, 『전쟁의 유산: 이념의 해체와 그 애도로서의 소시민화-이호철의 『소시민』 (1964)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57호, 2014, 82면.
- 심진경, 『소시민, 천박하거나 가련한』, 『국민일보』, 2017년 6월 2일.
- 이호철, 『自序』, 『소시민』, 강미문화사, 1979, 7면.
- 임경순, 『폐쇄된 시간과 정신성으로서의 이념』, 겨레어문학회, 『겨레어문학』, 39호, 2007, 310면.
- 정명환, 『실향민의 문학 - 이호철의 『소시민』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1967년 여름호, 241-243면.
- 정원채, 『이호철의 『소시민』에 나타난 인식적 특성과 소설미학적 특징』,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159호, 2011, 375-399면.
- 정호웅, 『탈향, 그 출발의 소설사적 의미 - 이호철의 『소시민』론』, 문학사와비평연구회, 『1960년대 문학연구』, 1993, 85-92면
- 최원식, 『1960년대의 세태소설』, 이호철, 『소시민/심천도』 해설, 청계, 1991

## 2. 단행본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 장은주, 『인권의 철학』, 새물결, 2010.
- 마살 버먼, 윤호병·이만식 옮김,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1994.

<Abstract>

## Archaeology of Snobs —A Study on Lee Ho-cheol's “*Sosimin*”

Kim, Young-Chan

Lee Ho-cheol's novel “*Sosimin*”(『소시민』) shows an example of how the era of wartime capitalism, in which the logic of survival that he should live on, devoured all values and shame, creates snobbery. The novel “*Sosimin*” coolly captures how the age of social change, in which food and living dominated all other values, created snobbery and how they became the mainstream of the times by rationalizing their snobbery. Thus, “*Sosimin*” was able to become an archaeological exploration and clinical report on the birth of snobs as a unique human form of modern Korea created by disruptive modernization. The novel “*Sosimin*” will then present a primitive scene in which the “age of snob” originates from the 1960s to the 1970s to the peak of the post-IMF era. This is the present significance of the “*Sosimin*” as the archaeology of the snob.

Key words: petit bourgeois, snob, archaeology, survival, modernization, Korean War, people, study cases, experience of modernity

투 고 일 : 2020년 5월 3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6월 12일

심 사 일 : 2020년 6월 1일-6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6월 26일